

## 연구소 통합을 막았던 일

김광석(金光錫)

〈1972~82 수석연구원·부원장·  
전 경희대학교 교수〉

1980년 내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신군부가 등장하여 국보위가 발족하면서 언론 통폐합 조치와 함께 정부출연 연구소의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국보위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국제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를 KDI로 흡수·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순 논리를 적용할 때 KDI 산하에 다른 연구소가 흡수 통합되어 규모가 커지면 그곳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원장이나 간부들 역시 대형 연구소의 원장이나 간부로서 세속적인 권위가 향상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김만제 원장을 비롯하여 간부들과 박사들 모두가 이를 반대했다. 국보위가 요구하는 대로 이들 연구소들을 KDI 산하에 흡수·통합할 경우 KDI는 공룡처럼 대형 연구소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

우 10년 동안 키우고 다듬어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구소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효율성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KDI는 이 통폐합을 반대했던 것이다.

김만제 원장은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KDI의 대형화를 경계해 왔으며,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연구소로 남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다. 연구소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관료화되고 운영면에서 문제가 생겨 연구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통합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관련자들을 설득했다.

이처럼 1980년은 KDI가 본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보위 방침대로 대형 연구소로 변신하여 그 본질이 희석되고 기능이 분산되느냐의 기로에 선 해였다.

그러나 김만제 원장을 비롯하여 KDI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아끼던 관료들의 노력으로 이 안(案)은 백지화되고, KDI는 종전 기능과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당시 언론사 통폐합 사실만 알 뿐, 연구소의 통합 사정은 잘 모른다. 그해 KDI와 합치려던 국제경제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센터와 통합되어 지금의 산업연구원이 되었고, 한국과학원(KAIS)은 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을 했다.

그때 통합 압력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체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KDI는 5공화국 이후의 경제발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1979년 KDI 연구총서로 출판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요인』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 책은 KDI가 발족하던 해 대졸 연구원으로 들어와 미국에 가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KDI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박준경 박사와 내가 함께 쓴 연구서로서,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 연구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후 이 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와 담을 쌓고 지내던 중국에서 번역되어 중국 공무원들의 교육 교재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것은 1987년 내가 KDI를 그만두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다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더니 안기부의 보고라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요인』을 중국에서 번역하여 공무원 교육용으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코치의 가방 속에도 들어 있을 정도로 널리 읽히고 있는 모양이라며 치하를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중국을 옆집 드나들듯 누구나 오고 갈 수 있지만, 당시의 중국은 적성국가였고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될 금단의 나라였다. 이런 중국에서 내 연구서가 번역되어 공산당 간부들과 공무원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순간, 나는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당시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고 있던 중국이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KDI는 이처럼 많은 보람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직장이었다. 70여 년의 내 인생에서 KDI에서 연구했던 기간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은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었기에 KDI는 지금도 긍지를 갖게 하는 직장이다.